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2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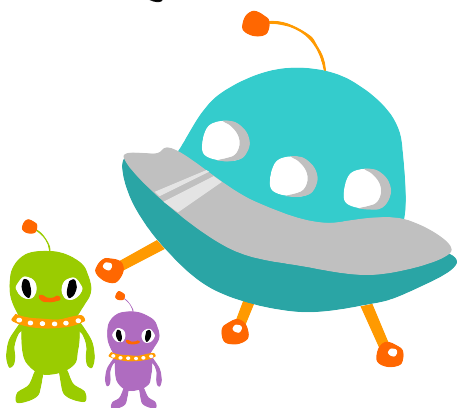
전국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기관,
국공립기관, 도서관, 해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차별화된 학교 밖 토요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가들과 함께 보고 듣고 잇고 느끼면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소질을 발견하고
가족과 또래 친구들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며
소통을 통한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변에서 항상 접할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인 도서관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매주 토요일
문학을 기본으로 타 예술장르와 융합한 문학교육프로그램인
〈악자지결 도서관 - 문학 놀이를 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자지결 도서관 - 문학 놀이를 꿈다’는
이론에서 벗어난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문학교육프로그램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여가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빈칸〉

약자지꼇 도서관
학생작품집
(1기 친구들)



<빈칸>

발간사

우리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 주관하는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약자지결 도서관 문학놀이를 품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론에서 벗어난 놀이와 타 예술 프로그램과 병행한 체험하는 문학교육프로그램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여가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은평구립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번 1기 어린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담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알알이 숨 쉬는 교육 결과물인 학생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서로 다르듯이 저마다 개성과 특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우리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한번, 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어린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중한 글과 꿈이 길이 빛나길 바랍니다.

은평구립도서관장

김 춘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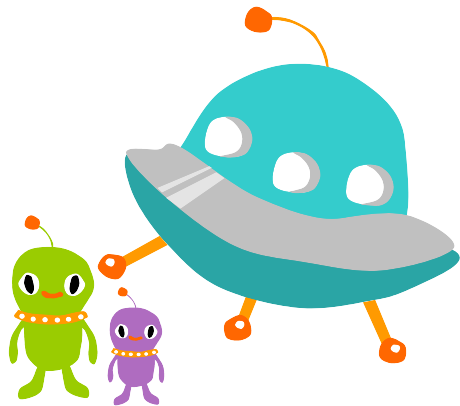
차례

| | |
|--------------------|----|
| 동시 | 9 |
| • 이재희 (3학년) | 11 |
| • 권성진 (3학년) | 12 |
| • 윤두영 (3학년) | 13 |
| • 홍영택 (3학년) | 14 |
| • 방기태 (3학년) | 15 |
| • 윤재호 (2학년) | 16 |
| • 정승민 (1학년) | 17 |
| • 박지빈 (1학년) | 18 |
| | |
| 이야기 쓰기 | 19 |
| • 색깔 여행 | |
| - 김희연 (1학년) | 21 |
| - 박수민 (1학년) | 22 |
| • 마음 편지 | |
| - 전경언 (1학년) | 23 |
| - 박예령 (1학년) | 24 |
| • 동화 쓰기 | |
| - 김규리 (2학년) | 25 |
| - 김푸른솔 (3학년) | 26 |
| | |
| 나의 꿈이란 | 27 |

| | |
|-------------------|----|
| • 안재완 (3학년) | 29 |
| • 임지호 (3학년) | 30 |
| • 민서연 (3학년) | 31 |
| • 이재성 (2학년) | 32 |
| • 현기호 (1학년) | 33 |
| | |
| 신기한 세상 | 35 |
| • 김도균 (3학년) | 37 |
| • 임지호 (3학년) | 38 |
| • 한지예 (1학년) | 39 |
| • 장세이 (1학년) | 40 |
| • 표승연 (1학년) | 41 |
| • 이시현 (1학년) | 42 |
| | |
| 포토북 | 43 |
| • 김도균 (3학년) | 45 |
| • 곽은혜 (2학년) | 46 |
| • 윤재호 (2학년) | 47 |
| • 민혜연 (1학년) | 48 |
| • 전예진 (1학년) | 49 |
| | |
| 연극 융화수업 | 51 |
| • 안수연 (4학년) | 53 |
| • 박수민 (1학년) | 54 |
| • 한지예 (1학년) | 55 |

- 현기호 (1학년) 56~57
- 무용 융화수업 59
 - 이재희 (3학년) 61
 - 김태희 (2학년) / 정다운 (2학년) 62
- 미술 융화수업 63
 - 안재완 (3학년) 65
 - 안수호 (2학년) 66
 - 손민경 (1학년) 67
 - 장세이 (1학년) 68
 - 김희연 (1학년) 69
- 예술 강사 소감 / 이진영 71~72
- 활동사진 73

학생작품
-동시



<빈칸>

한 밤 중에
바닷가에서 소라가 찾아왔다
소라를 귀에 대었다
“앗, 차가워!”
마음까지 차갑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



학교

권성진

학교 운동장은
시끌시끌
학교 교무실은
소르륵
학교 급식실은
꾸르륵 꾸르륵



봄 비

윤 두 영

봄비가 쇠 쇠 쇠
산들이 세수한다.
들이 세수한다.
주룩 주룩
쇠아 쇠아



군밤

홍영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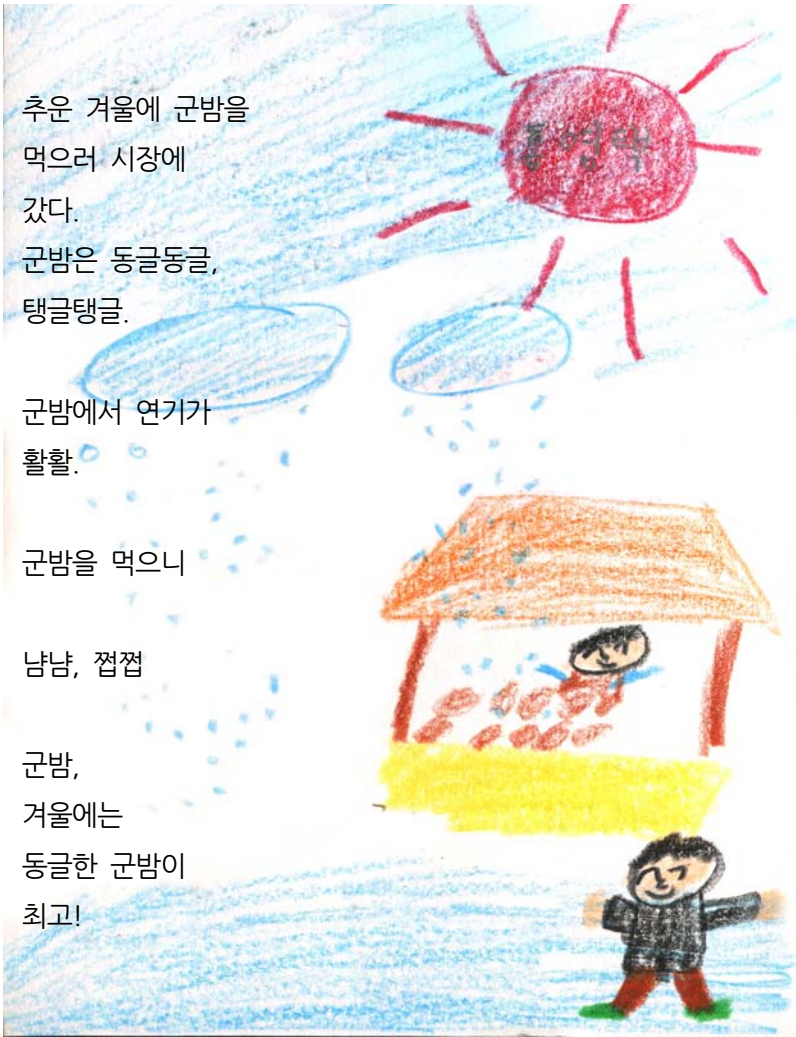
추운 겨울에 군밤을
먹으러 시장에
갔다.
군밤은 동글동글,
탱글탱글.

군밤에서 연기가
활활.

군밤을 먹으니

남남, 짹짹

군밤,
겨울에는
동글한 군밤이
최고!



엄마 잔소리 무섭다
아빠 잔소리 기 죽는다
동생 잔소리 화가 난다
우리 가족은 잔소리 대마왕
엄마는 잔소리 대마왕
아빠는 잔소리 마왕
동생은 잔소리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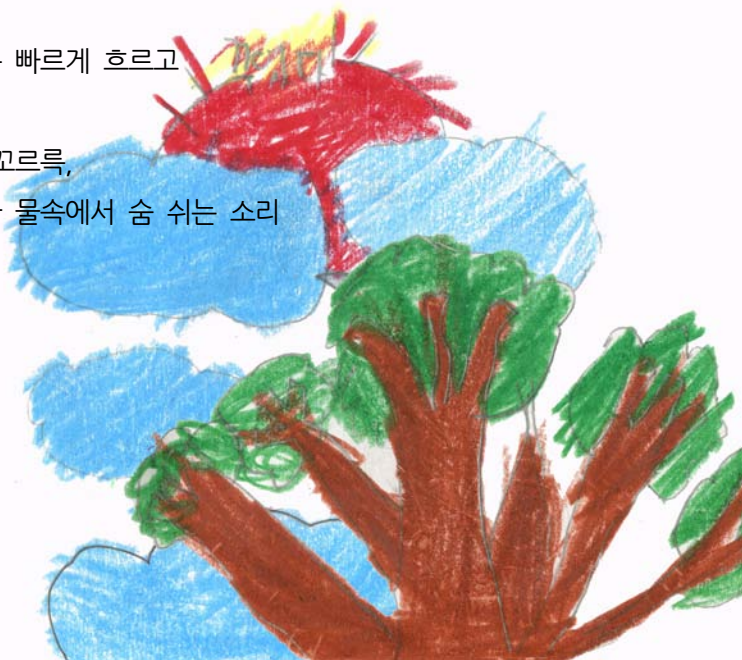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다.
나는 싫다고 하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 된다.
나는 후다닥 달아난다.
난 놀이로 후다닥 후다닥 빨리 달아난다.
이번엔 학교로 가다가 신호에 걸렸다.
기다리다가 엄마한테 잡혔다.
결국 심부름을 했다.
왜냐하면 엄마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다음에는 꼭 심부름 하지 않고 도망쳐야지!
으하하하하~ 하하하하!

타닥타닥,
사슴은 곰한테 쫓기고
퍼드득,
새는 하늘을 난다

졸졸졸,
시냇물은 빠르게 흐르고

꼬르륵 꼬르륵,
올챙이가 물속에서 숨 쉬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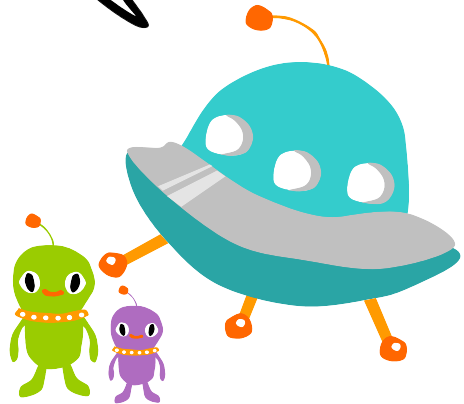


봄

박 지 빈

봄 바람이 살랑살랑
꿀벌과 나비들이
훨훨 날아서
꽃들한테 꿀을 주네
꽃은 활짝 활짝
기분 좋은 봄

학생작품
-이야기 쓰기



<빈칸>

색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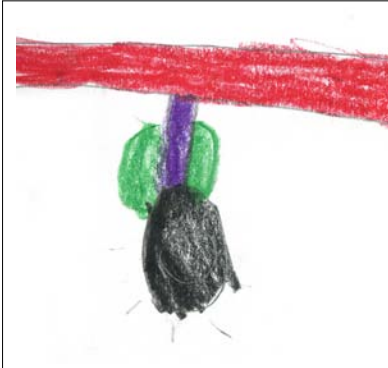
김 희 연



빨간색을 보면 무슨 마음?
피와 잘 익은 딸기가 생각나.
그리고 햇빛이 짹짹 비추는 것 같아.



파란색을 보면 무슨 마음?
하늘이 파랗고, 시원한 바람이
마음에 부는 것 같다.



검정색을 보면 무슨 마음?
나는 검정색을 보면 마음에 등
불이 꺼진 것 같아.



갈색을 보면 무슨 마음?
나는 갈색을 보면 땅도 생각나
고 박쥐도 생각나!

색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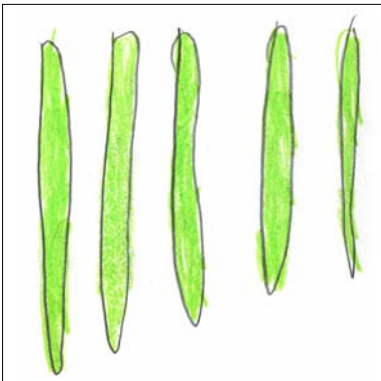
박수민



빨간색을 보면 무슨 마음?
딸기가 잘 익은 것 같다.



파란색을 보면 무슨 마음?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초록색을 보면 무슨 마음?
마음에 풀이 돋아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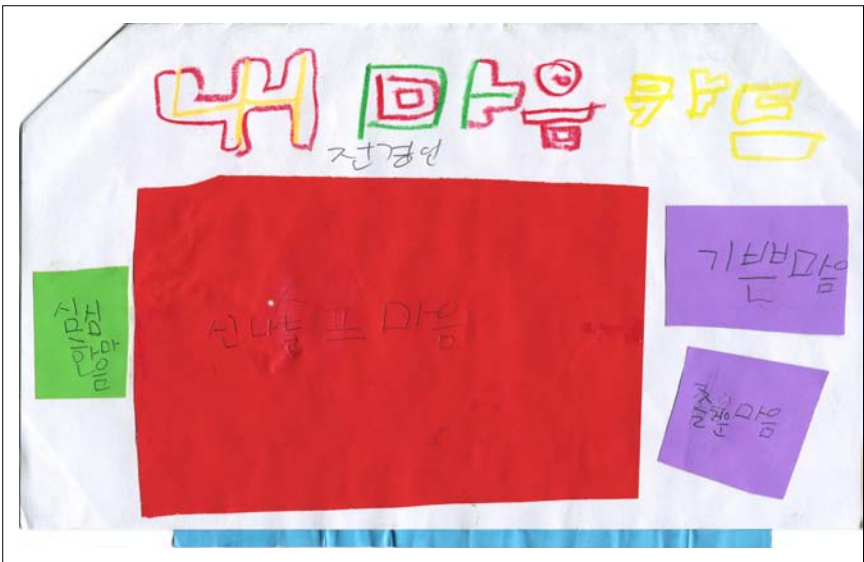


검정색을 보면 무슨 마음?
동굴 안에 박쥐가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에게...

전 경 언

내 마음이 슬플 때 형이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동생이 슬플 때에는 내가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다.
친구가 슬플 때에는 내가 친구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내가 울 때에는
친구들이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내 마음카드, 내 마음을 색깔로 표현해봐!

내 마음에게...

박예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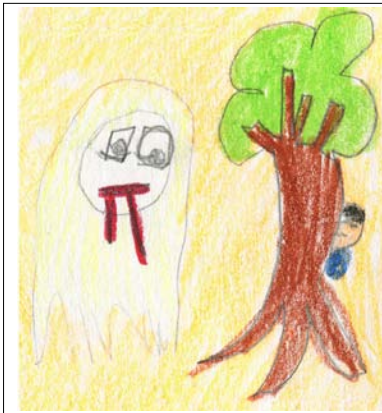
내 마음아 파이팅!
고민을 하느라고 힘들었지?
나도 참 힘들었어.
우리 서로 힘들었지?
그러니 힘내자!
그럼 안녕~!



내 마음카드, 내 마음을 색깔로 표현해봐!

그림 동화 쓰기

김 규 리



내가 귀신이 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우개가 되어서 잘못 글자를 쓴 사람의 글을 지워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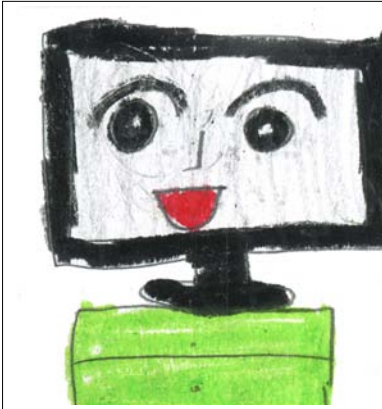
나무가 되면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줄 것이다.



다람쥐가 되면 도토리를 찾으러 다닐 것이다.

그림 동화 쓰기

김 푸 른 솔



텔레비전이 되면 사람들을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강아지가 되면 옷을 입고 걸어서 다니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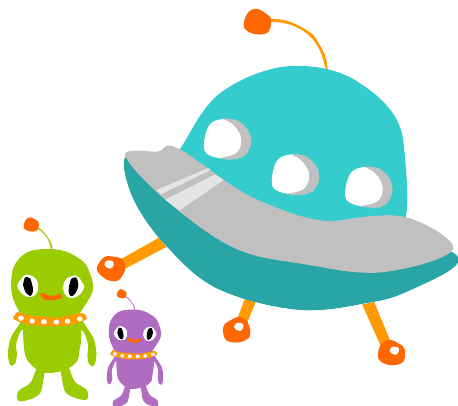


햄스터가 된다면 씹씹하고 용감하게 서고 싶다.



드라큘라가 되면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을 먹을 거다.

학생작품
-나의 꿈이란?



<빈칸>

대법원장이 될 거예요!

안재완

나는 커서 대법원장이 되고 싶다.

나쁜 사람을 재판해서 잘못된 사람은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마술사가 될 거예요!

임 지 호

나는 마술사가 되어서 아주 신기한 마술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것이다.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민서연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을 틀리지 않거나 갑자기 멈추지 않고 아름답게 피아노를 치고 싶다. 꼭 아름답게 피아노를 쳐서 내 꿈을 이루고 싶다. 띠리리~ 따라라라~



경찰관이 될 거예요!

이 재 성

나는 커서 경찰관이 될 거예요. 경찰관이 되어서 나쁜놈을 잡을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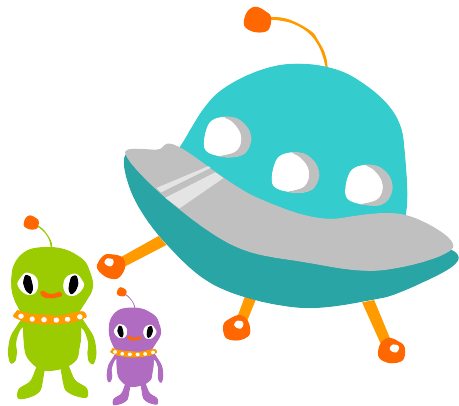
현 기 호

나는 커서 과학자가 될 거야.
그래서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거야.



<빈칸>

학생작품
-신기한 세상



<빈칸>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세상

김도균

내가 상상한 신기한 세상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곳이다. 아침엔 햄버거가, 점심엔 토스트가, 간식으로 젤리가 저녁으로 샌드위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곳이다. 하루 종일 오렌지주스 비가 내리고, 사람들은 아침, 점심, 간식, 저녁때마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손을 벌려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이런 세상에서 못 살 것 같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만 떨어지는 음식만 먹어야하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도균이가 그린 신기한 세상

두 개의 다리가 있는 세상

임 지 호

두 개의 다리가 존재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다리는 금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는 금빛으로 되어 있는 다리만으로 다녔습니다. 금빛이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금빛으로 된 그 다리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리를 건너고 있다가 무심코 다리 밑을 내려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리 밑에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길 위는 금빛으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에는 금빛으로 된 다리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남자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한참동안 다리 밑을 내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 어떤 사람이 금빛으로 된 다리 밑에 있는 길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땅속에 검은색 다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금색으로 된 다리로 걸어 다녔지만 아이는 검은 다리로 다녔습니다.



지호가 그린 신기한 세상

바다 왕국을 구한 공주

한 지 예

어느 날 바다 왕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쓰레기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마녀가 찾아와서 쓰레기들을 없애 준다고 했다. 그러자 셋째 공주가 나서서 말했다.

“내가 쓰레기를 없애볼게요”

공주가 당당히 말하자 왕이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말했어요.

곧 셋째 공주는 쓰레기를 다~먹어 치웠어요! 그러자 왕이 “너는 우리 왕국의 최고다~”라고 말했어요. 공주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지예가 그린 신기한 세상

무지개 탄생 이유

장 세 이

어느 날 어떤 까치와 사람이 호텔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까치는 날개가 없어지고 사람에게는 갑자기 날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까치는 사람이 되고 사람은 천사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 빨, 주, 노, 초, 파, 보 이렇게 6개의 등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은 나중에 무지개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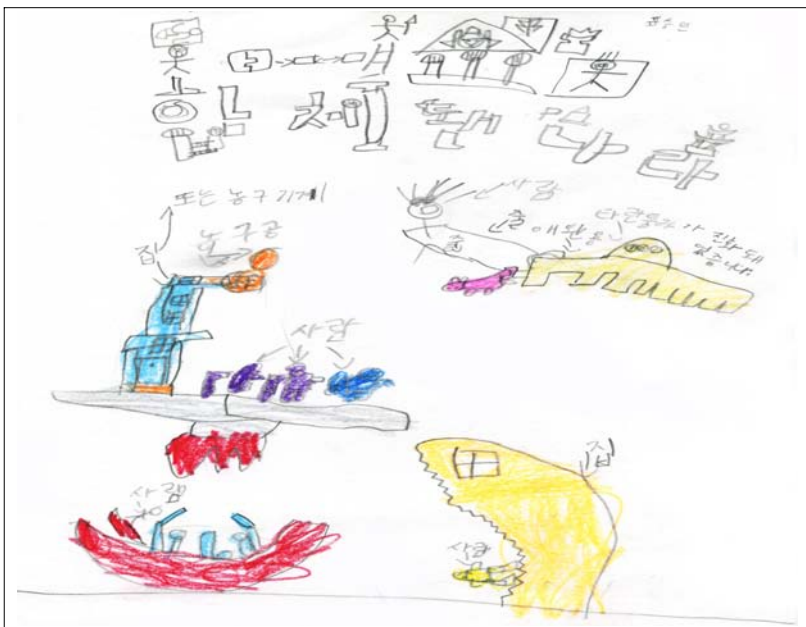
세이가 그린 신기한 세상

두 개가 합체된 세상

표 승 연

두 개의 물건이 합체된 세상이 있으면 어떨까?

두 개의 물건이 합체하면 세상은 더욱 편리해 진다. 농구공과 농구대가 합쳐지면 더욱 편리해 진다. 애완용 타란틀라와 애완용 줄이 합쳐지면 산책을 할 수 있다. 집과 사람이 합쳐지면 편리하다. 합체가 되면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참 편리하다.



승연이가 그린 신기한 세상

이중으로 나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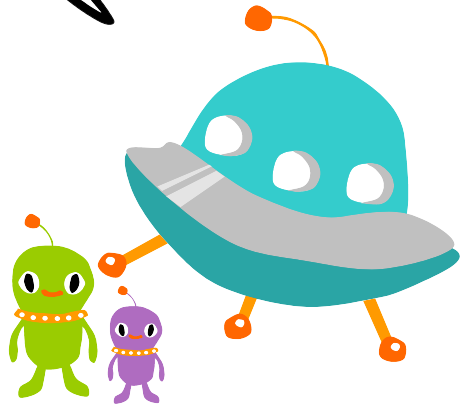
이 시 현

다른 한 쪽의 세상에서는 비가 오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눈이 온다.
그러나 하늘은 하나다. 땅만 두 개일 뿐이다. 색이 다른 하늘에서 비는
은색이고, 눈은 형광 주황색이다. 그래서 신기한 세상이다.



시현이가 그린 신기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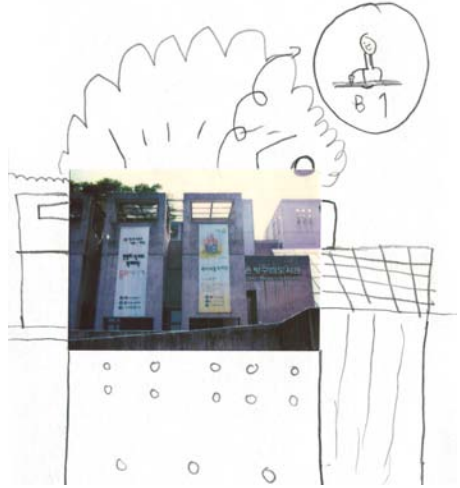
학생작품
- 포토북



<빈칸>

<도서관>

쓱쓱쓱쓱 스르륵 스르륵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
쓱쓱 쓱쓱 스르륵 스르륵
형들은 공부를 하고,
하하하하, 호호호,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는 수업을 듣는다.
쓱쓱 쓱쓱, 스르륵



<바다>

좌아아~ 좌아아~
끼룩, 끼룩 와, 바다다~!
침방~!
바닷물은 짜다.
그래도 시원하다.
혹시 바다에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있지 않을까?

사랑의 포토북 / 지구를 지키는 사람 / 가격 5000원

곽은혜

〈무지개 바다 속 세상〉

우리가 갔던 무지개 바다 속 세상
물고기가 귀여웠다.

친구랑 계속 놀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그만 놀라고 해서
그만 놀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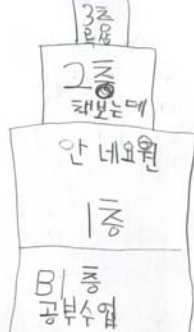
〈2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에 나는 28살이 된다.
20년 뒤에는 웃는 엄마가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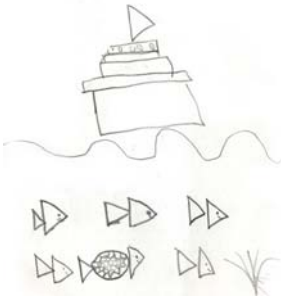


<우리 도서관>

우리 왁작지껄 도서관, 우리반
 시청각실이 제일 시끄럽네.
 시끌시끌 아이 시끄러!
 빨리 빨리 나가고 싶네!
 근데 재미있어서 절대 못 나가겠네.
 그리고 올라 올 때는 너무 힘드네.
 계단과 올라오는 길이 너무 많네.
 구립 도서관이 작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고기>



물고기야 우리에게 먹을 것과
 몸에 좋은 것을 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해파리야! 너는 독성이래서 만질 순 없지만
 사람한테만 붙지 말아줄래?
 바다에서 수영 대왕인 거북이야,
 너는 정말 대단해!
 근데 너는 육지에서는 느린데
 바다에서만 빠른 이유가 뭐니?

<언니와 공부>

언니랑 공부하는 게 좋았다.
근데 갑자기 언니가 너무
괴롭혀서 너무 싫었다.
그래서 언니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모습



<20년 후 나의 모습>

나는 28살이 되면 선생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글씨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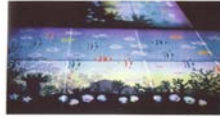
20년
후 모습



생각하는 만화영화 포토북 / 마당을 나온 암탉 출판
전 예 진

<물고기 세상>

바다 속에서 물 위를 떠 있으며
둥둥 떠 다녔으면 좋겠다.
신기한 물고기도 많이 보고
만져봤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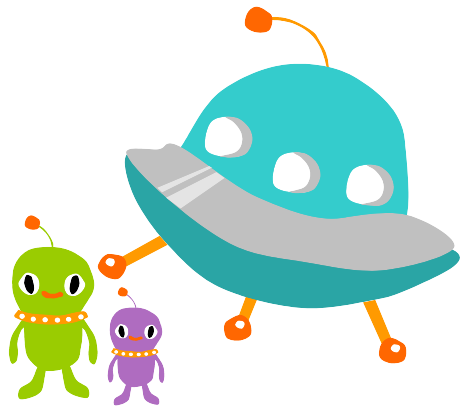


<20년 뒤의 나의 모습>

나는 과학자가 되어서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아플 때
약을 만들어서
약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빈칸>

학생작품
-연극 영화
수업



<빈칸>

미래의 나의 모습은 패션 디자이너!

안수연

“저는 커서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멋진 옷을 만들거예요!”



미래의 나의 모습은 요리사!

박수민

“저는 미래에 요리사가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예요!”



미래의 나의 모습은 가수!

한 지 예

“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내 몸으로 조각상을 표현해 보아요!

현 기 호

“이 조각상의 이름은 ‘포즈를 취하는 조각상’입니다. 연극 선생님이 먼저 아무 동작이나 취하면 기호가 그에 맞춰 움직여서 조각상 흉내를 내는 활동입니다. 선생님은 그냥 기호 옆에서 움직였을 뿐인데 기호가 알아서 동작을 만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기호의 현란하고 재미난 포즈에 맞춰 선생님이 또 다른 포즈를 취했구요. 그렇게 7번의 동작에 걸쳐 ‘포즈를 취하는 조각상’ 이 완성되었답니다!

살아있는 최초의 조각상!! 기호의 ‘포즈를 취하는 조각상’ 을 감상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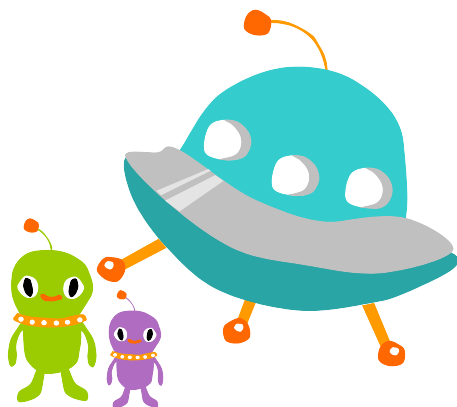
※ **감상 포인트** : 절대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면 기호가 덮칠 수 있어요!!

“포즈를 취하는 조각상”



<빈칸>

학생작품
-무용 융화
수업



<빈칸>

숲에 관련된 동시 쓰고 몸짓으로 표현하기

이 재 희

<나무네 가족>

옛날에 나무 가족이 있었어

나무 가족은 뽕꾸기와 친구였지

나무와 뽕꾸기가 얘기를 했어

뽕꾸기야, 뽕꾸기야 우리 집에 놀러 오렴

뽕꾸기는 날아 갈 것 같은 기쁨 마음

뽕꾸기가 맨날 대합창을 했다.

뽕꾹! 뽕꾹!



숲에 관련된 동시쓰기

김 태 희/정 다 은

<숲 속 동물들>

김 태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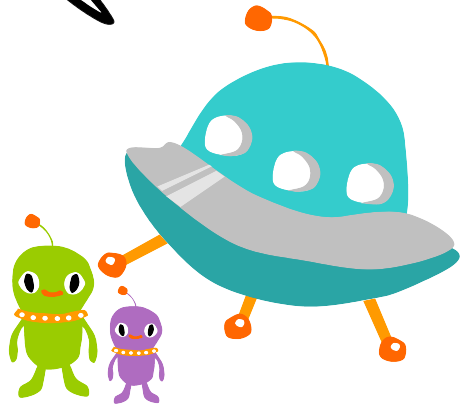
고양이가 운다. 야옹야옹
개구리가 운다. 개굴개굴
토끼가 운다. 깡충깡충
호랑이가 운다. 어흥어흥
사자가 웃는다. 피식
돌고래가 웃는다.
푸푸푸푸푸푸

<나무랑 뽕나무랑>

정다은

숲에는 숲의 뽕나무 가족
뿌드득 뿌드득
큰 대합창
으스스한 숲 하늘
작은 숲속의 나무 세 가족
뽕~뿌득 뽕드득
혼자 노래하는 곡조
흔들릴 듯 한 잎

학생작품
-미술 융화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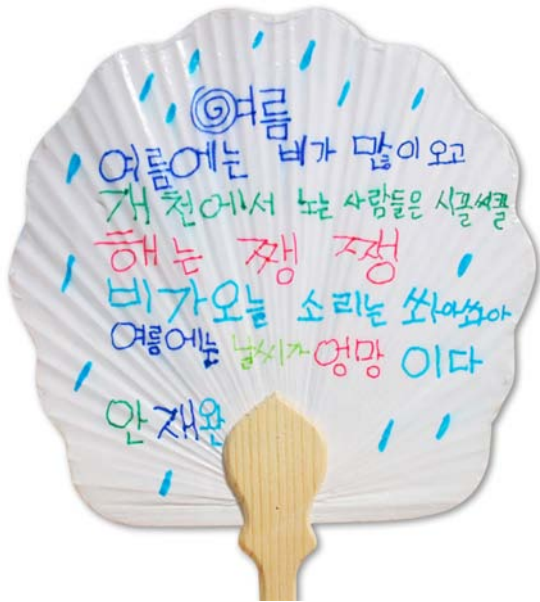
<빈칸>

여름에 대한 동시쓰기 - 부채에 쓴 시

안재완

<여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개천에서 노는 사람들은 시끌 시끌
해는 쨍 쨍
비가 오는 소리는 썩아 썩아
여름에는 날씨가 엉망이다.



여름에 대한 동시쓰기 - 부채에 쓴 시

안 수 호

<장마>

장마는 끝도 없이 오네
오면서 오면서 강물이 많아지네
1일, 2일, 3일, 4일, 5일 일주일 넘게
비가 오네



여름에 대한 동시쓰기 - 부채에 쓴 시

손민경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반짝반짝 햇님의 아기씨앗 같아요.

해바라기 씨앗은 해바라기의 아기씨앗 같아요.



여름에 대한 동시쓰기 - 부채에 쓴 시

장 세 이

<꽃>

참새소리에 잠깨어나 나가 보니
꽃잎에 모인 이슬이 아름다워
꽃을 꺾고 마네.

아아~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너무 예뻐서 그랬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여름에 대한 동시쓰기 - 부채에 쓴 시

김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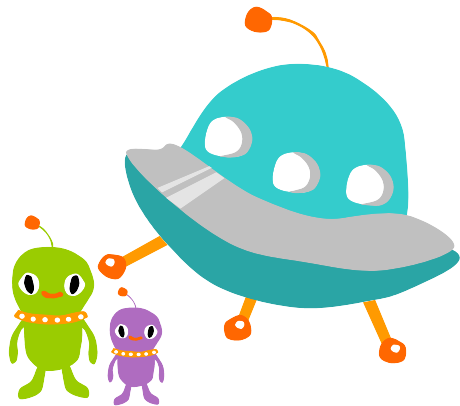
<무더위의 여름>

더워 더워 너무 더워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도 틀고
전기는 점점 낭비된다.
이제 제발
그만 그만
한 개라도 꺼줘!



<빈칸>

예술 강사
소감



강의를 마치며.

이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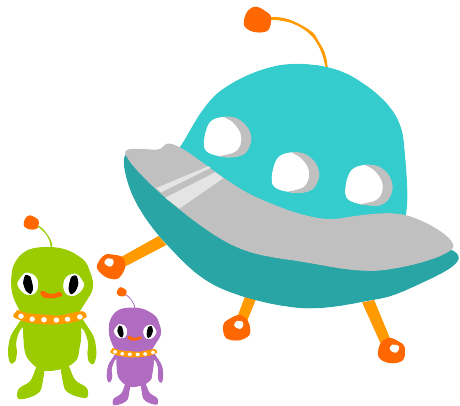
처음 은평구립도서관에서 문학강의를 하던 날, 수업시간 분배를 잘 하지 못해 아이들과 우왕좌왕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아이들과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할지, 어떤 농담을 하면 좋아할지, 어떤 부분에서 혼을 내야할지 몰라 안절부절 하곤 했었지요. 그런데 어느덧 3개월이 지나 1기 약자지꼴 문학교실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3개월 동안 매 주 토요일에 만나서 3시간씩 함께 보내며 화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섭섭하고 서운할 때도 많았는데, 막상 되돌아보니 좋고 보람찼던 기억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3개월 문학 강의를 통해 아이들이 급격하게 감성이 풍부해지고 글쓰기 실력이 뛰어나게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문학교실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글쓰기나 책을 접할 때 거부감이 예전보다 덜 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번 문학교실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동안 아이들이 쓰고 만들고 그린 작품들을 부모님들께서 꼭 자세히 살펴봐주시고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작품 속에 드러난 아이들의 마음에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3개월 동안 부족한 저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이진영 강사와 함께한 활동 모습〉



〈모래랑 빛이랑 현장체험〉



〈연극, 무용, 미술 융화수업〉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
운 영 은평구립도서관
발 행 인 김춘화 관장
발 행 일 2013. 8.
발 행 처 은평구립도서관
문 의 T.(02)385-1671~4

본 자료집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